

Forgiveness & Reconciliation in Egypt 애굽에서의 용서와 화해 (창 45)

Forgiveness... 'Naturally' Withheld... Supernaturally Given

It'd been 22 years since sold into slavery & trafficked to Egypt...22 years since he'd seen his father. After the false accusation of Potiphar's wife....he'd spent ~ a decade in prison. Now.... 9 years as Pharaoh's PM, he was at the height of his power....Here.....prostrated before him & pleading for mercy were those men who'd sinned so greatly against him. Humanly speaking...Joseph had every reason & opportunity to unleash fury...To try & satisfy the anger... exact revenge on the men who after plotting to murder him....had given him up for dead as a slave...Instead we have Genesis 45, one of the most glorious chapters showing forgiveness in the entire Bible.

Withholding forgiveness can often be our default tendency...John Calvin....described forgiveness as a creditor....who without any payment, through voluntary kindness.....expunges the debt. Christian speaker, Dr Voddie Baucham asked what that looks like when we move from that 'transactional' description to a relational example...when we say, 'I forgive you' what we often mean is simply that I'm not going to unleash or blow up on you..... instead of wiping out the offence the other person may have caused we find other ways of making them pay.

Who in our lives do we want to see pay for a real or perceived crime against us? How can we be free from that? Consider Joseph as he considers the Lord. His ability to forgive was knowing God's sovereign grace over all events...that He uses everything — even the evil of others & the calamity of a fallen world — for His glory & our good...that sets us free from holding onto those hurts — because we know that they have an ultimate greater purpose in God's plans — even that we might have joy.

Today's word is the Lord's encouragement for each of us to know His sovereign goodness of forgiveness to know His power to forgive others.

요셉이 노예로 팔려나가 애굽으로 끌려간 지 22년이 되었고, 그의 아버지를 보지 못한지도 22년이 되었습니다. 보디발의 아내가 요셉에게 누명을 씌워 수년을 억울하게 감옥에서 보내게 되었고...이제 그는 애굽의 총리가 되어 다스리기 시작한 지 9년이 되었습니다... 이제 이런 요셉 앞에 엎드려, 그의 자비를 구하는 그의 형제들이 있습니다. 인간적인 생각으로, 요셉은 이 형제들에게 분노하여 자신을 죽이려 하고, 자신을 노예로 팔아버린 이 형제들에게 복수하여 이들의 악을 갚을 충분한 이유가 있었습니다. 그러나 오늘 우리는 45장 말씀을 통해, 성경 가운데 가장 영광스러운 용서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용서를 보류하려는 것은 우리의 기본적인 성향이 될 수 있습니다. 존 칼빈을 용서에 관해 설명할 때, 이를 채권자로 묘사했습니다. 아무런 대가 없이, 자발적인 친절로 빚을 청산해 주는 채권자로...기독교 연설가인 Dr. Voddie Baucham 은 이를 좀 더 관계적인 예를 들어 설명합니다. “내가 당신을 용서합니다”라고 말할 때, 우리가 보통 갖는 생각은 “내가 당신에게 폭발하거나 화내지 않겠습니다”로 이해한다...상대방이 한 잘못을 없는 일로 해주기보다는, 우리는 그들이 대가를 치르게 할 다른 방법을 찾는다.’

이렇게 자기 잘못에 대한 대가를 치렀으면 하는 사람이 있나요? 어떻게 하면 우리가 이런 생각으로부터 자유로울 수 있을까요? 요셉을 바라보십시오...요셉이 용서 할 수 있었음은, 그가 그의 모든 삶 가운데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주권적 은혜를 알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수많은 고난과 악 또한, 하나님의 영광과 우리의 선을 위해 사용합니다. 그래서 삶의 모든 부분이 하나님의 계획 가운데 더 큰 목적을 위함임을 알게 될 때, 우리는 삶의 어려움 가운데서도 자유로우며, 기뻐할 수 있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은, 용서의 유익에 대해 알며, 다른 이를 용서할 수 있게 하는 그분의 능력을 알도록 격려하기 위함입니다.

God was showing His hidden hand to Joseph as he saw his brothers bow before him on both visits — just as he'd dreamed in his two dreams as a 17 year old. Prior to Joseph revealing himself...he needed to test the brothers to see if the sin that raged against him all those years earlier was at work. With Benjamin as the subject...Joseph reconstituted two tests...to discern the state of their hearts

Test 1; chapter 43 He gave Benjamin x5 portion Instead of envy there was joy

Test 2 chapter 44 — when Joseph had his silver cup hidden in Benjamin's sack...instead of betrayal — Judah offered himself as the substitute...pleading for his life...showing himself a transformed character from a man once driven by jealousy & lust...now gracious & selfless. Judah's words & willingness to give himself to save his brother & spare his father showed he was a new man...It was all that Joseph needed to know.....

Forgiveness Comes by Knowing Sovereign Grace (1-13)

V1, 'Then Joseph could not control himself before all those who stood by him. He cried, "Make everyone go out from me." So no one stayed with him when Joseph made himself known to his brothers. And he wept aloud, so that the Egyptians heard it, and the household of Pharaoh heard it. And Joseph said to his brothers, "I am Joseph! Is my father still alive?" But his brothers could not answer him, for they were dismayed at his presence.'

On Joseph's revelation, his brothers were speechless... 'dismayed at his presence'. The word translated, 'dismayed' also means 'terrified'...they were utterly shocked, stunned.....stupefied by his announcement. The brothers were already pleading for mercy.....they must have been terrified when Joseph ordered everyone to leave with his commanding cry. They would have been bracing themselves for execution. But instead came something utterly unexpected....loud weeping....so loud that it echoed throughout the whole palace..... To finish it all came the staggering revelation, "I am Joseph! Is my father still alive?"

요셉이 17 살에 꿈과 같이, 요셉의 형제들이 그 앞에 나와 절할 때, 하나님께서는 요셉에게 그의 숨은 손길을 보여주셨습니다. 그리고 요셉은 그들의 형제에게 자신의 정체를 드러내기에 앞서, 그들을 시험해 여전히 그들이 같은 죄 가운데 살아가고 있는지 분별할 필요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베냐민을 통해 요셉은 두 개의 시험을 실행해 그들의 마음 상태를 분별합니다.

첫 시험은 43 장에서 본 것과 같이, 베냐민에게 다른 형제들보다 5 배의 많은 음식을 줬고, 형제들은 이를 질투 하기보다는, 기쁨 가운데 있었습니다.

두 번째 시험은 44 장에서 보게 되는데, 요셉이 그의 은잔을 베냐민의 포대에 숨기었을 때, 형제들은 그를 배신하고 도망가지 않았고. 특별히 유다는 자기 자신이 대신해서 그 벌을 받으며, 희생함으로, 동생을 구하려는 모습을 보였고, 자기 동생과 아버지를 위해 자기 자신을 희생하려는 유다의 모습은, 그가 새로운 사람으로 태어났음을 나타냈으며, 이는 요셉의 마음을 충족시켰습니다.

하나님의 주권적 은혜를 앞으로 용서함.

1~3 절 *“요셉이 시종하는 자들 앞에서 그 정을 억제하지 못하여 소리 질러 모든 사람을 자기에게서 물러가라 하고 그 형제들에게 자기를 알리니 그 때에 그와 함께 한 다른 사람이 없었더라 요셉이 큰 소리로 우니 애굽 사람에게 들리며 바로의 궁중에 들리더라 요셉이 그 형들에게 이르되 나는 요셉이라 내 아버지께서 아직 살아 계시니이까 형들이 그 앞에서 놀라서 대답하지 못하더라”*

요셉이 자신의 정체를 드러내자, 그의 형제들은 말문이 막혔습니다... “그 앞에서 놀라서 대답하지 못하더라”. 여기서 “놀라서”라는 동사는 “두려워하다”와 같은 의미가 있습니다...형제들은 요셉의 말에 완전히 충격을 받았고, 어리둥절한 것입니다. 요셉이 정체를 밝히기 전부터, 이미 형제들은 요셉에게 자비를 구하는 상황이었고, 요셉이 소리 지르며, 모든 사람은 물러 가라고 했을 때, 그들은 겁에 잔뜩 질렸을 것입니다. 그들은 아마도 자신들이 처형 당할 수 있으리라 생각 했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이들의 예상과는 다르게, 요셉은 울기 시작합니다. 우는 소리가 너무 커서 바로의 궁중에 들릴 수 있을 정도였다 말씀 합니다. 그리고는 요셉은 다음과 같은 질문을 합니다... “나는 요셉이라 내 아버지께서 아직 살아 계시니이까”

Judah had already just told Joseph that his father was alive...Joseph asked the question more as an expression of amazement & relief than ignorance. The fact that the old man he left behind 22 years earlier could still be alive for him to see was another astonishing testimony of God's grace.

They didn't know what to say.....Joseph could see that they were terrified....V4, '(So) Joseph said to his brothers, "Come near to me, please." And they came near. And he said, "I am your brother, Joseph, whom you sold into Egypt. And now do not be distressed or angry with yourselves because you sold me here,...'

Notice how Joseph's concern is for his brothers — after calling them in to repeat the revelation & remind them of their sin he quickly follows it up with the gracious words of how they were to consider themselves.....not to be distressed or angry

Notice the reason for his grace command is directly because of God's sovereign goodness...when he says...V5b, 'for God sent me before you to preserve life. For the famine has been in the land these two years, and there are yet five years in which there will be neither plowing nor harvest. And God sent me before you to preserve for you a remnant on earth, and to keep alive for you many survivors.'

Now 2 years into that severe famine & 39 y.o. Joseph was leading his older half-brothers as well as his younger full-brother in grace. The words that followed his revelation were so they would understand the Providence of God [that is...the way — in His sovereign goodness that God provides]. Though they were directly responsible for selling him....it was God who oversaw it — so much so that Joseph could say to his brothers, v8, '(So) it was not you who sent me here, but God. He has made me a father to Pharaoh, and lord of all his house and ruler over all the land of Egypt.'

이전에 유다는 요셉에게 아버지가 아직도 살아 계신다는 사실을 말한 적이 있습니다...그래서 오늘 구절에서 요셉이 아버지의 생사를 물음은, 이를 몰라서 묻는 것보다는, 기쁨과 안도의 표현으로 이해할 수 있습니다. 22년 전에 이별했던 아버지가 아직도 살아계신다는 사실은, 하나님 은혜에 대한 놀라운 증거였기 때문에입니다.

이제 공포에 질려있는 형제들에게 요셉은 4절에서 다음과 같이 말합니다... 4~5절 중반 “*요셉이 형들에게 이르되 내게로 가까이 오소서 그들이 가까이 가니 이르되 나는 당신들의 아우 요셉이니, 당신들이 애굽에 판 자라 당신들이 나를 이곳에 팔았다고 해서 근심하지 마소서 한탄하지 마소서*”

여기서 우리는 형제들을 향한 요셉의 배려를 주목할 필요가 있습니다. 요셉은 자신의 정체성을 드러내고, 형제들의 지난날에 죄에 대해 언급하나, 바로 이어서 말하기를, “이곳에 팔았다고 해서 근심하거나 한탄하지 마소서” 라고 말합니다.

요셉이 이렇게 자비로운 말을 할 수 있었음은, 하나님의 주권적 선하심 때문인 것을 5절 후반에서 보게 됩니다... 5~7절 “*하나님이 생명을 구원하시려고 나를 당신들보다 먼저 보내셨나이다 이 땅에 이 년 동안 흉년이 들었으나 아직 오 년은 밭갈이도 못 하고 추수도 못할지라 하나님이 큰 구원으로 당신들의 생명을 보존하고 당신들의 후손을 세상에 두시려고 나를 당신들보다 먼저 보내셨나니*”

요셉이 39살이 되고 2년째의 극심한 가뭄 가운데, 요셉은 그의 모든 형제를 은혜 가운데 인도합니다. 요셉이 자신의 정체성을 드러낸 후 형제들에게 하나님의 선하신 섭리에 대해 말합니다. 비록 이들은 요셉을 노예로 판 죄에 대한 책임이 있었으나, 이 또한 하나님의 섭리였음을 요셉은 8절에서 고백합니다... “*그런즉 나를 이리로 보낸 이는 당신들이 아니요 하나님이시라 하나님이 나를 바로에게 아버지로 삼으시고 그 온 집의 주로 삼으시며 애굽 온 땅의 통치자로 삼으셨나이다*”

In this He encourages them even as he shows that he'd long since forgiven them. Not only had he shown great mercy in not giving them what they deserved...but he lavished grace on them by commanding them from v9 to bring Jacob...& to provide for their survival in the most fertile area of Egypt in the coming 5 years of famine. It's one thing to show mercy...withholding the punishment that another deserves...but quite another to pour out grace...that is, the active, positive blessing of undeserved goodness on the sinner.

You've probably heard it said, 'I can forgive, but I'll never forget.' Perhaps you've thought that about someone that's wounded you from something hurtful they've said or done. The Lord's desire is that we wouldn't hold onto the memory of the grievance...& show we haven't really forgiven...but rather that we would forgive & seek to do good towards the one we've forgiven.

Again, it calls for wisdom...would Joseph have revealed himself & blessed them in this way if the brothers had remained full of envy & violent intent? That is, if they'd continued in unrepentant sin? The fact that he'd gone to such lengths to test them shows that wisdom restrained his disclosure — of himself & of grace until he was sure they were sorry. While we seek God's strength to exercise a forgiving heart to others — we aren't called to pretend all is reconciled if the other party is hard hearted.

But we are called to be responsible for the regard we have for others. The spiritual store house to be willing to extend mercy & grace is found — as Joseph found it — by trusting in the Lord's sovereignty...The more we hold fast to His loving Providential purposes... even the evil & tragic events in our lives to achieve His great purposes...the more He empowers us to be forgiving

But as followers of the Lord...we also have the particular grace of knowing just how much in Christ God has forgiven us. Col 3:13 says, 'forgive as the Lord forgave you.'

그들이 받아 마땅한 처벌을 행하지 않음으로 요셉은 긍휼을 나타낼 뿐만 아니라, 9 절에서 보듯이, 야곱과 모든 가족을, 가뭄의 땅에서 음식이 풍족한 애굽으로 초대해 그들을 생존케 함으로 그의 긍휼을 나타냅니다. 이를 통해 긍휼함을 나타냄이 무엇인지 우리는 배우게 됩니다. 다른 사람이 받아 마땅한 처벌을 만류하는 것뿐만 아니라, 은혜 가운데 받을 자격 없는 자들에게 적극적으로 선을 베푸는 것이 긍휼함을 나타내는 방법입니다.

누가 우리에게 마음의 상처를 줄 때, 우리는 종종 이렇게 말합니다 “그 사람을 용서는 해도 결코 그 사람의 행동은 잊지 않을 것이다”. 이는 타인을 진정으로 용서한 것으로 말할 수 없습니다. 주님께서 원하시는 것은 이런 슬픈 기억을 붙잡기보다는, 타인을 진정으로 용서하고, 우리가 용서한 자에게 선을 행하시기를 바랍니다.

요셉을 통해, 용서 가운데 필요한 지혜를 우리는 또한 보게 됩니다. 만약 요셉의 형제들에게 여전히 질투와 미움이 가득하며, 지난날 자신들의 죄를 회개한 모습을 보이지 않았다면, 요셉이 이와 같은 자비를 베풀었을까요? 요셉이 자신의 형제들을 시험함은, 이들이 진정으로 자신의 죄를 회개하며 미안해하고 있었는지를 알기 위함이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능력을 구함으로 타인을 용서해야 합니다. 그러나 이런 용서는 어디까지나 타인이 자신의 잘못을 뉘우칠 때 용서해야 하며, 타인의 마음이 여전히 굳어 있다면, 우리는 이 사람을 용서한 척할 필요가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여전히, 요셉과 같이, 하나님의 섭리를 신뢰함으로, 은혜와 긍휼 가운데 타인을 용서할 수 있는 기반을 발견합니다. 모든 악과 슬픔 또한 하나님의 선하신 섭리의 목적 가운데 있다는 사실을 우리가 신뢰할 때, 우리는 타인을 용서할 수 있는 힘을 얻게 됩니다.

특별히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는 자들로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께서 우리의 죄를 용서하셨다는 사실로, 우리는 또한 타인들을 용서 할 수 있습니다. 이런 맥락에서 골로세서 3:13 절에서는 다음과 같이 말씀합니다 “서로 용납하여 피차 용서하되 주께서 너희를 용서하신 것 같이 너희도 그리하고”.

Again the encouragement to us is to consider whether we have a sullen regard towards anyone in our lives...& if so to consider whether we really do believe that God is sovereign over the wounds we receive.....to work out a far greater purpose than the pay back we want to achieve? When we grow in bitterness it shows that we've forgotten how much the Lord has forgiven us our debt of sin...& poured out the grace of his transforming love into our lives. That's not to deny that the sins of another against us are sometimes so horrific that it is a real challenge even to get to the point of praying for the Lord's help to forgive...Even so.....the Lord desires us to be in a better place than resentment...& stands ready to help free us from the burden of it

Such were the snapshots of Joseph's revelation of mercy & grace towards his brothers. In light of his revelations... we now see the wonderful picture of reconciliation

Reconciliation (14-15)

v14, 'Then he fell upon his brother Benjamin's neck and wept, and Benjamin wept upon his neck. And he kissed all his brothers and wept upon them. After that his brothers talked with him.'

With true reconciliation came great emotion...weeping tears of sadness at all the sin of the past...weeping tears of joy at the providence of God to save them all & the forgiveness now to preserve their family with redeeming peace.

Psalm 133:1-2 'Behold, how good and pleasant it is when brothers dwell in unity!
It is like the precious oil on the head, running down on the beard, on the beard of Aaron,
running down on the collar of his robes!'

Think to the times you've been reconciled...when you had genuinely cancelled their debt & they were genuinely sorry...you've forgiven them & there's a strengthening of your relationship...ready for grace, rather than that ongoing downward & never satisfying spiral of payback

삶 가운데 나에게 상처 준 자들을 용서하지 못한다 한다면, 이런 상처 또한 사용해서 더 위대한 목적을 이루시는 하나님의 섭리를 신뢰하는지,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물으십니다. 만약 우리가 용서하지 못한다면, 주님께서 우리의 큰 죄의 빛을 탕감해 주신 것과 우리의 삶 가운데 사랑의 은혜를 부어 주신다는 사실을 잊은 것입니다. 물론 다른 사람이 정말 심한 잘못과 죄 때문의, 우리 자신의 힘으로는 도저히 용서할 수 없는 죄가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럴지라도 주님께서서는 우리가 기도 가운데 하나님의 도움을 구함으로, 원통함보다는 용서하기를 원하십니다.

우리는 오늘 요셉을 통해서 이런 은혜와 긍휼함의 좋은 예를 보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를 기반으로 아름다운 화해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회해 (14~15 절)

14~15 절 “자기 아우 베냐민의 목을 안고 우니 베냐민도 요셉의 목을 안고 우니라 요셉이 또 형들과 입맞추며 안고 우니 형들이 그제서야 요셉과 말하니라”

이런 화해의 모습에는 큰 감정도 따라오게 됨을 보게 됩니다. 요셉의 형제들이 지난날의 죄 때문에 슬픔 가운데 우는 모습을 보게 되고...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그들을 기근으로부터 구하며, 용서 가운데 가족이 화평함을 다시 누릴 수 있음에, 기쁨의 눈물을 또한 흘림을 보게 됩니다.

시편 133:1~2 “그 얼마나 아름답고 즐거운가! 형제자매가 어울려서 함께 사는 모습! 머리 위에 부은 보배로운 기름이 수염 곧 아론의 수염을 타고 흘러서 그 옷깃까지 흘러내림 같고,” (새번역)

여러분이 화해했을 때를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이 진정으로 그들의 빛을 탕감하고 그들이 진심으로 당신에게 미안해했을 때...당신은 그들을 용서했고, 그 용서로 그 관계가 더더욱 돈독해지는 것입니다.

The Grace in Reconciliation (16-28)

V16, 'When the report was heard in Pharaoh's house, "Joseph's brothers have come," it pleased Pharaoh and his servants.

What we then see is that Pharaoh commands Joseph to instruct his brothers to go back to get their father & households & return to receive the best land in Egypt. Joseph lavished them with provisions v22, 'To each and all of them he gave a change of clothes, but to Benjamin he gave 300 shekels of silver & 5 changes of clothes.' Now that forgiveness & reconciliation had happened....the gift of clothing sealed the promise of his favour....a tangible way to show grace had overturned their evil of stripping Joseph & stealing his robe.

After multiplying gifts for his father, the final word from Joseph before he sent his brothers back to Canaan to return with his father and their families was v24, "Do not quarrel on the way." Joseph knew the way of sinful reflection when the restraint of his rule was removed. The temptation could come for angry reprisals.

Joseph, the one from a human perspective had every right to pay them back had forgiven & brought reconciliation with them. He had great power & authority in commanding them not to fight. The parallel for us is as brothers & sisters in Christ....forgiven an infinite debt by the ultimate Lord are to replace our tendency to quarrel & want to win arguments with the humble grace & peace that comes from applying the truth from Luke 7 that the one who has been forgiven much also loves much.

V25, 'So they went up out of Egypt and came to the land of Canaan to their father Jacob. And they told him, "Joseph is still alive, and he is ruler over all the land of Egypt." And his heart became numb, for he did not believe them.'

For Jacob to have heard that Joseph was still alive after believing him to have been dead for 22 years would have brought natural disbelief. But added to that was their sin of deceit that brought about Jacob's response of a numb — unresponsive heart ... because he didn't believe them ... they knew it would take more to convince him.....

화평가운데 있는 은혜

16 절 “*요셉의 형들이 왔다는 소문이 바로의 궁에 들리매 바로와 그의 신하들이 기뻐하고*”

이제 바로는 요셉에게 명령하기를, 땅에 돌아가 아버지를 다시 데려와 애굽의 좋은 땅을 취하라고 명령합니다. 그리고 요셉은 가족들에게 많은 물질을 나눠 줍니다...22 절 “*또 그들에게 다 각기 못한 벌씩을 주되 베냐민에게는 은 삼백과 옷 다섯 벌을 주고.*” 이제 용서와 화해가 이뤄지고 나서, 이런 선물은 요셉의 호의와 약속을 입증하는 것입니다.

그의 아버지에게 줄 선물을 챙긴 후, 가나안 땅으로 돌아가 가족들을 다시 데려올 형제들에게 요셉은 24 절에서 “*당신들은 길에서 다투지 말라*” 라고 말합니다. 요셉은 인간의 죄성을 인지하며, 분노함 가운데 양갈음 할 수 있는 유혹이 있음을 알았던 것입니다.

인간적인 관점에서 요셉은 그들의 악행을 보복할 수 있는 권리가 있었습니다...그러나 요셉은 보복대신 용서와 화해를 택했습니다. 그렇기에 요셉은 그의 형제들에게 다투지 말라 말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이런 사실이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적용됩니다...우리가 도무지 갚을 수 없는 죄의 빚을 탕감받고 용서받음은, 우리가 겸손한 은혜 가운데 싸우고 언성을 높이며 다투려는 본성에 변화를 가져옵니다.

25~16 절 “*그들이 애굽에서 올라와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서 아버지 야곱에게 이르러 알리어 이르되 요셉이 지금까지 살아 있어 애굽 땅 총리가 되었다이다 야곱이 그들의 말을 믿지 못하여 어리둥절 하더니*”

22 년 동안 죽은 줄만 알았던 자기 아들 요셉이 살아 있다는 소식을 들었을 때, 야곱을 이를 믿기 어려웠을 것입니다. 야곱이 이렇게 무디어진 데에는, 자신의 아버지를 속인 형제들의 죄 또한 한몫 합니다. 그래서 그들은 야곱을 설득시키기 위해 더 큰 노력이 필요함을 알았습니다.

v27, '(But) when they told him all the words of Joseph, which he had said to them, and when he saw the wagons that Joseph had sent to carry him, the spirit of their father Jacob revived. And Israel said, "It is enough; Joseph my son is still alive. I will go and see him before I die.'

The words of his sons weren't enough....they needed to tell their father what Joseph had said....he needed to see the evidence from Egypt. His spirit came to life...Jacob's grief turned to joy to match the wonder that Joseph had that he too was alive. It's the grace that came to Jacob through the forgiveness & reconciliation effected by Joseph.... the remission of the sins of his sons....reconciliation with the lord against whom they'd sinned brought earthly salvation for the whole family

Knowing the Power of Forgiveness & Reconciliation

Could there be a more beautiful story of forgiveness, reconciliation & the grace that flows from it than Genesis 45? Yes....it's Jesus' story.....who makes it our story if we've come to Him to receive the forgiveness He paid for by His death & the new life that comes by His resurrection

He freed us from the debt of sin that we could never repay...He reconciled us to Himself when we were dead in sin....to make us alive to God, to ensure that in all things — from the best to the most heinous evil God is working out His saving & sanctifying plans for us & the world

Genesis 50:20.....Romans 8:28

In Christ, God sets us free from payback to have power to repay evil with good...to "be kind tenderhearted, forgiving one another, as God in Christ forgave you." (Eph. 4:32)

27 절 “ 그들이 또 요셉이 자기들에게 부탁한 모든 말로 그에게 말하매 그들의 아버지 야곱은 요셉이 자기를 태우려고 보낸 수레를 보고서야 기운이 소생한지라 이스라엘이 이르되 족하도다 내 아들 요셉이 지금까지 살아 있으니 내가 죽기 전에 가서 그를 보리라 하니라”

이들의 말만으로는 충분하지 않았기에, 그들은 요셉의 말을 전하며, 이런 말에 대한 증거로 애굽에서 가져온 수레를 야곱에게 보여줍니다. 요셉의 용서와 화해로 말미암아 그 유익을 야곱이 은혜 가운데 누리게 됨을 보게 됩니다. 용서와 화해를 통해 온 집안에 구원을 가져다 주었습니다.

용서와 화해의 힘을 아는 것.

창세기 45 장의 이야기와 같이, 용서, 화해, 은혜가 넘치는 이런 아름다운 이야기를 다른 곳에서 볼 수 있나요? 우리는 예수님을 통해서 보게 됩니다...우리의 죄를 위해 돌아가심으로 용서를 받고, 그의 부활로 말미암아 새 생명을 누리는 이야기를!

예수님은 우리가 도저히 갚을 수 없는 죄의 빚을 갚으셨습니다...그는 우리가 죄 가운데 죽어 있을 때, 우리를 하나님과 화목케 하셨습니다...그래서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새 생명 가운데 살아가며, 그 어떤 악 가운데서도, 우리를 위한 그의 구원과 성화의 계획을 이루신다는 확신을 주십니다

창 50:20 당신들은 나를 해하려 하였으나 하나님은 그것을 선으로 바꾸사 오늘과 같이 많은 백성의 생명을 구원하게 하시려 하셨나니,

로마서 8:28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께서는 우리로 악을 악으로 갚지 말고, “ 서로 친절하게 하며 불쌍히 여기며 서로 용서하기를 하나님이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를 용서하심과 같이 하라” (엡 4:32)라고 말씀하십니다.